

장애유아 어머니와 비장애유아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parental satisfaction between mothers who have young children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대전대학교 아동벤처산업학과
전임강사 양 연 속

Dept. of Venture Business for Children, Daejeon Univ.
Full-time Instructor : Yeon Suk Yang

목 차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I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compared parental satisfaction between mothers who have young children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The study subjects were 100 mothers who take care of disabled children and 123 mothers who take care of non-disabled children. The children's ages were from 3 to 6 year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mothers who take care of disabled children had lower mother's parental satisfaction than those who have ordinary mothers.

Second, the children's age and the degree of disability had an affirmative influence on the parental satisfaction of the mothers who have disabled children.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parental satisfaction of the mothers who have ordinary children according to mothers' age and their educational background. The parental satisfaction in both mother groups increased with increasing parenting efficacy, marital satisfaction and family support, and with decreasing parenting stress.

Finally, parenting efficacy, children's age, parenting stress, and family support significantly predicted the parental satisfaction of the mothers who have disabled children while parenting efficacy, parenting stress, and educational background significantly predicted the parental satisfaction of the mothers who have ordinary children.

주제어(Key Words): 부모역할만족도(parental satisfaction), 장애유아 어머니(mothers who have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I. 서론

결혼한 부부는 자녀를 출산함으로써 부모라는 사회적 위치에 서게 되고, 부모로서 양육행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모 역할이 진행된다. 부모역할은 부모의 삶에 새로운 만족감을 가져다주는 동시에 갈등과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더욱이 태어난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있을 경우 장애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과중한 역할책임이 부과되고, 그 역할에서 오는 긴장, 극도의 불안, 피로 등을 수반하는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장애자녀를 항상 보호해야 하는 심리적 부담과 부모자녀 상호간의 욕구충족 및 여가선용 등의 결여로 만성적인 우울, 불안 등 정서적 문제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Hanson & Hanline, 1990), 정상 발달을 하는 자녀를 둔 가족에 비해 더 많은 고통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고(강선경, 2002; 전유경, 2003; Dayson, 1993), 결혼만족도가 낮으며(Bristol, Gallager & Schoper, 1988), 이혼율이 높고(Tew, Lawrence, Payne & Rawnsly, 1977), 장애에 대한 주위의 부정적 시각으로 인해 사회적 지지망의 감소 또는 사회적 고립감을 경험한다(이경희, 1993; 이한우, 2002; Berger & Fowlkes, 1980)고 한다. 그러나 스트레스 개념에 대한 Mikhail(1985)의 논평에 따르면 개인마다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에는 차이가 있으며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자각에 의해 결정되고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는 개인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한다. 비록 일부 연구이지만 자녀의 장애로 인해 가족의 결속력이 높아지고 이전에 비해 더 친밀해지는 등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으며(Singer & Fawkes, 1989), 상당수의 가족들이 자녀의 장애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그 기능도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Bristol et al., 198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자녀를 둔 부모의 부모역할을 위기와 스트레스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사회화 과정상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인 부모역할로의 전이로 보고, 자녀양육이 부모에게 경제적, 시간적, 심리적 부담을 안겨주므로써(Goldstein & Ross, 1989)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를 낮추고 스트레스를 가져오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부모역할을 즐기고 만족하는 부모역할만족감이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을 상쇄한다는 주장(강선경, 2002; 조복희, 현운강, 1994; Guidubaldi & Cleminshaw, 1989)에 주목하고자 한다. Guidubaldi와 Cleminshaw(1989)는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도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치러야 할 경제적 부담, 자유의 박탈, 훈육의 어려움 등과 같은 일상적인 긴장과 갈등 요소를 경감시켜 성인이 지각하는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부모, 자녀를 포함하는 가족체계의 긍정적인 형성에 주요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부모역할만족도란 부모가 자녀를 다루는 과정에서 부모로서 느끼는 기쁨과 유능감의 주관적 영역으

로(Bowen, 1982),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만족감, 행복감, 보람 등 심리적 만족감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모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모역할에 대한 심리적 만족감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에 비하여 부모역할만족에 관한 국내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부모역할만족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은 부모역할만족의 선행변인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강희경, 1994; 양연숙, 1997; 옥경희, 2000; 현운강, 1994), 양육태도, 양육행동 및 모성이데올로기와의 관련성 파악(김인지, 2005; 도현심, 김지신, 1997; 문혁준, 2001; 임연신, 2002)에 머물러 있다. 더욱이 장애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만족감과 같은 긍정적인 결과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자녀양육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장애 유아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를 이해하기 위하여 비장애 유아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와와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 장애 유아 부모가 역할 수행에 느끼는 긍정적 측면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장애유아 어머니와 비장애유아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을 탐색하고, 장애유아 어머니와 비장애유아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장애유아 어머니의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대처와 적응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한다.

부모역할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통해 관련 변인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는 자녀 및 어머니특성, 그리고 가족특성 변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자녀특성으로는 유아의 건강상태가 좋을 때(현운강, 1994), 자녀가 여아일 때(조복희, 현운강, 1994), 출생순위가 낮을수록(강희경, 1994)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가 높았다. 어머니특성으로는 어머니의 연령(강희경, 1994; 양연숙, 1997; 임연신, 2002; Umberson, 1989; Wethington & Kessler, 1989)과 학력(문혁준, 2001; 임연신, 2002; Wethington & Kessler, 1989)이 높을수록, 그리고 비취업모보다는 취업모의 부모역할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조복희, 현운강, 1994; Goldstein & Ross, 1989). 또한 어머니가 자신의 부모역할에 대해 지니고 있는 부모효능감이 높고, 역할갈등이나 심리적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부모역할만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양연숙, 1997). 가족특성으로는 가정의 수입이 많고(문혁준, 2001; 조복희, 현운강, 1994; Wethington & Kessler, 1989), 결혼만족도(Lavee, Sharlin & Katz, 1996)와 가족이 받는 사회적 지지나 격려(도현심, 김지신, 1997; 양연숙, 1997; 옥경희, 2000; 현운강, 1994)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유아, 어머니 및 가족특성으로 구분하

여, 유아특성으로 유아의 연령, 성, 출생순위,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어머니특성으로 어머니의 연령, 학력, 종교, 취업유무와 함께 부모역할 수행에 따른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을 반영하는 부모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를, 가족특성으로는 월소득, 가족형태와 가족과 관련하여 어머니의 부모역할 수행과 지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혼만족도 및 가족지원을 선정하여 이들 변인이 부모역할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유아특성에서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변인을 추가한 것은 다른 장애유형일 경우보다 발달장애일때(이한우, 2002; Koegel & Koegel, 1995) 그리고 장애정도가 심각하여 일상생활 능력이 낮을수록(김동연 외, 1993; Krauss, 1993) 어머니의 긴장과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들을 통해 자녀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가 부모역할만족도를 설명하는 주요 변인이라 사료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장애유아 어머니와 비장애유아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의 정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장애유아 어머니의 부모역할에 대한 심리적 적응과 대처를 이해하고, 장애유아 가정 및 어머니의 역할을 지원하는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장애유아 어머니와 비장애유아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장애유아 어머니와 비장애유아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는 유아특성, 어머니특성 및 가족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장애유아 어머니와 비장애유아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에 미치는 관련 변인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만 3세 이상 만 6세 미만의 취학전 장애유아 어머니 100명과 비장애유아 어머니 123명으로 총 223명이다. 장애유아는 의사에 의해 장애인단을 받아 장애아로 등록된 유아를 대상으로 하였다. 장애유아의 경우 정신지체(36%), 뇌병변(27%), 발달장애(25%) 등의 장애유형을 지니고 있었으며, 장애정도는 1급 32%, 2급 36% 그리고 3급이하가 32%로 나타나 중증의 장애유아가 대부분이었다.

2. 측정도구

부모역할만족도는 현온강과 조복희(1994)에 의해 타당화

연구가 이루어진 부모역할만족도 척도의 하위영역인 일반적인 만족도 11문항을 사용하였다.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만족감, 행복감, 보람 등 심리적 만족감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4점 Likert 척도였으나 변인 간 상대적 비교를 위해 5점 Likert 척도로 수정하였다. 각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로서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Cronbach α = .90).

유아특성은 유아의 연령, 성별, 출생순위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장애유아를 대상으로는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가 추가되었다.

어머니특성은 어머니의 연령, 학력, 종교, 취업여부, 부모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로 구성되었다. 부모효능감은 Gibaud-Wallston과 Wandersman (1978)이 개발한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PSOC)를 신숙재(1997)가 재구성한 9문항을 사용하였다. 자녀를 잘 양육하고 지도하며, 자녀에게 문제가 생겨도 이를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부모로서의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는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Likert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로서 효능감을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Cronbach α = .84). 양육스트레스 척도는 Abidin(1990)이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검사(Parenting Stress Index, PSI)를 이한우(1998)가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양육스트레스는 아동의 활동성, 감정, 적응 및 요구성으로 인해 양육에 어려움을 느끼는 아동영역 관련 문항과 양육을 수행하는 부모가 경험하는 유능성, 억압, 침체, 배우자관계, 사회적 고립 및 건강 등의 부모영역 관련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총 24문항, 5점 Likert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Cronbach α = .88).

가족특성은 월소득, 가족형태, 결혼만족도 및 가족지원을 통해 측정하였다. 결혼만족도는 Schumm과 동료들(1983)의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KMSS)의 3문항에 정현숙(1997)이 '당신은 아버지로서의 남편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의 문항을 첨가하여 타당화 연구가 이루어진 RKMS(Revised Form of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을 척도를 사용하였다. 결혼만족도는 본래 4점 Likert 척도였으나 5점 Likert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Cronbach α = .90). 가족지원은 김명희(1996)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가사일 도움, 자녀돌보기 도움과 같은 도구적 지원, 자녀지도 정보, 문제해결 도움 등의 정보적 지원, 외로울 때 의지, 한가한 시간 공유 등의 정서적 지원 등으로 구성된 총 8문항, 5점 Likert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상호작용 하는 사람들에게서 받는 지원의 정도가 높음을 나타낸다(Cronbach α = .85).

3. 자료 분석

SA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t검증, 일원변량분석, Duncan 사후검증,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장애유아 어머니와 비장애유아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

장애유아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는 5점 Likert 척도에서 평균 4.02(SD=.46), 비장애유아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는 평균 4.41(SD=.43)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장애유아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는 비장애유아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5.35, p<.001$). 즉, 장애유아 어머니의 경우 비장애유아 어머니보다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2. 유아특성, 어머니특성 및 가족특성에 따른 장애유아 어머니와 비장애유아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

1) 유아특성

장애유아 어머니의 경우는 유아의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F=4.37, p<.01$), 유아의 성별, 출생순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비장애유아 어머니의 경우에는 유아의 연령, 성별, 출생순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장애유아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에 미치는 유아의 연령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Duncan 사후검증

<표 1> 유아의 연령, 성별, 출생순위에 따른 장애유아 어머니와 비장애유아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의 차이

구분	장애유아 어머니 부모역할만족도		비장애유아 어머니 부모역할만족도	
	N	Mean(SD)	N	Mean(SD)
연령	만3세	29 4.27(.44)a	30	4.28(.53)
	만4세	26 3.82(.60)b	42	4.30(.47)
	만5세	45 3.99(.56)b	51	4.14(.40)
	F	4.37**		2.01
성별	남아	69 4.01(.63)	63	4.44(.48)
	여아	31 3.80(.62)	60	4.38(.56)
	t값	0.99		0.68
출생순위	외동	21 3.94(.73)	23	4.37(.56)
	첫째	29 3.62(.66)	24	4.26(.63)
	둘째이하	50 4.04(.54)	66	4.51(.40)
	F	0.14		2.27

** $p<.01$

을 실시한 결과, 장애유아가 만 3세의 경우 부모역할만족도는 평균 4.27(SD=.44)로 높게 나타났으나, 만 4세와 만 5세의 경우에는 평균 3.82(SD=.60), 3.99(SD=.56)로 의미 있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만 3세 장애유아 어머니보다는 만 4세, 만 5세 장애유아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유아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자녀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따른 부모역할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장애유형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장애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5.41, p<.01$).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Duncan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1급인 경우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가 평균 3.73(SD=.65)으로 낮은 반면, 2급과 3급 이하인 경우에는 평균 4.00(SD=.60), 4.14(SD=.5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장애의 정도가 중할 때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유아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따른 장애유아 어머니와 비장애유아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의 차이

구분	장애유아 어머니 부모역할만족도	
	N	Mean(SD)
장애 유형	정신지체	36 4.05(.50)
	발달장애	25 3.93(.61)
	뇌병변	27 3.75(.74)
	기타	12 4.09(.71)
	F	0.98
장애 정도	1급	32 3.73(.65)b
	2급	36 4.00(.60)a
	3급이하	32 4.14(.59)a
	F	5.41**

** $p<.01$

2) 어머니특성

장애유아 어머니의 경우 부모역할만족도는 어머니의 연령, 학력, 종교, 취업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비장애유아 어머니의 경우도 종교, 취업유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어머니의 연령과 학력에 따라 부모역할만족도의 정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장애유아 어머니의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 부모역할만족도 평균은 4.53(SD=.41)으로 35세 미만인 경우의 평균 4.33(SD=.57)으로 보다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241, p<.05$). 또한 비장애유아 어머니의 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 부모역할만족도는 평균 4.53(SD=.48)으로 전문대졸 이상인 경우의 평균 4.32(SD=.52)보다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2.45, p<.05$). 즉, 어머니의 연령이 35세 이상으로 높은 집단과 학력이 고졸이하로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의

〈표 3〉 어머니의 연령, 학력, 종교, 취업여부에 따른 장애유아 어머니와 비장애유아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의 차이

구분	장애유아어머니 부모역할만족도		비장애유아어머니 부모역할만족도	
	N	Mean(SD)	N	Mean(SD)
연령	35세미만	57 3.94(.61)	72	4.33(.57)
	35세이상	42 3.94(.66)	51	4.53(.41)
	t값	-0.04		-2.41*
학력	고졸이하	59 3.96(.60)	55	4.53(.48)
	전문대졸이상	41 3.91(.69)	68	4.32(.52)
	t값	0.49		2.45*
종교	유무	57 3.99(.60)	59	4.50(.45)
		43 3.85(.66)	64	4.33(.56)
	t값	0.20		1.05
취업	유무	22 4.08(.49)	81	4.43(.51)
		78 3.90(.66)	142	4.39(.52)
	t값	0.88		0.81

*p<.05

부모역할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어머니특성 중 부모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와 부모역할만족도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은 장애유아 어머니 및 비장애유아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r=.42, p<.001$; $r=.56, p<.001$), 양육스트레스는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r=-.37, p<.001$; $r=-.55, p<.001$). 이는 자녀의 장애여부와 관계없이 부모로서 자신이 능력을 높게 지각하고 있는 어머니일수록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어머니일수록 부모역할만족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표 6〉 장애유아 어머니와 비장애유아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와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장애유아 어머니	1	2	3	4	5	6	7	8
1. 유아연령	1.00							
2. 유아성별 ^a	-.01	1.00						
3. 장애정도	-.16*	.04	1.00					
4. 부모효능감	-.12	.08	.08	1.00				
5. 양육스트레스	.15	-.06	-.06	-.41***	1.00			
6. 결혼만족도	-.12	.09	.10	.32***	-.39***	1.00		
7. 가족지원	.02	.15	-.02	.29**	-.38***	.21**	1.00	
8. 부모역할만족도	-.31***	.16*	.26**	.42***	-.37***	.36***	.29**	1.00
비장애유아 어머니	1	2	3	4	5	6	7	8
1. 어머니연령		1.00						
2. 어머니학력	.03	1.00						
3. 어머니종교 ^b	.12	.11	1.00					
4. 부모효능감	.19*	-.03	.08	1.00				
5. 양육스트레스	-.27**	.12	-.06	-.42***	1.00			
6. 결혼만족도	.09	.02	.00	.34***	-.38***	1.00		
7. 가족지원	-.04	-.03	.01	.16	-.41***	.30***	1.00	
8. 부모역할만족도	.23*	-.19*	.17*	.56***	-.55***	.45***	.27**	1.00

*p<.05, **p<.01, ***p<.001

유아성별^a: 남아=1 여아=0
어머니종교^b: 유=1 무=0

〈표 4〉 장애유아 어머니와 비장애유아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와 부모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

구분	장애유아어머니 부모역할만족도	비장애유아어머니 부모역할만족도
부모효능감	.42***	.56***
양육스트레스	-.37***	-.55***

***p<.001

〈표 5〉 장애유아 어머니와 비장애유아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와 결혼만족도 및 가족지원 간의 상관관계

구분	장애유아어머니 부모역할만족도	비장애유아어머니 부모역할만족도
결혼만족도	.36***	.45***
가족지원	.29*	.27**

*p<.05, **p<.01, ***p<.001

3) 가족특성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특성 중 월소득 및 가족형태는 장애유아 어머니 및 비장애유아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결혼만족도 및 가족지원과 부모역할만족도간에는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즉, 결혼만족도와 가족지원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지각하는 부모역할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

3. 장애유아 어머니와 비장애유아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에 미치는 관련 변인의 영향력

장애유아 어머니와 비장애유아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에 미치는 관련 변인의 영향력

족도에 미치는 관련 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종속변인인 부모역할만족도와 유아특성, 어머니특성, 가족 특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유의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선정하였다.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를 살펴본 결과 .50이하로 독립변인들 간의 선형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표 6).

장애유아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는 유아의 연령과 성, 장애정도, 어머니의 부모효능감, 양육스트레스, 결혼만족도 및 가족지원 등의 독립변인들에 의해 약 41% 설명되었다. 어머니의 부모효능감($\beta=.34, p<.001$)이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이었으며, 그 다음이 장애유아의 연령($\beta=-.23, p<.01$), 그리고 양육스트레스($\beta=-.19, p<.05$), 가족지원($\beta=.17, p<.05$) 및 장애정도($\beta=.16, p<.05$)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유아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이 높고, 장애유아의 연령이 어리고, 양육스트레스가 낮고, 가족지원의 정도가 높을수록 부모역할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장애유아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는 어머니의 연령, 학력, 종교, 부모효능감, 양육스트레스, 결혼만족도 및 가족지원 등의 독립변인들에 의해 약 47% 설명되었다.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이 높으면서($\beta=.33, p<.001$) 지각된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낮은($\beta=-.22, p<.05$), 저학력의 어머니일수록($\beta=-.16, p<.05$) 부모역할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장애유아 어머니와 비장애유아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R ² /F값
장애유아 어머니의 부모역할 만족도	유아연령	-.00	-.23**	R ² =0.4052 adjusted R ² =0.3640 F=9.83***
	유아성별	.10	.07	
	장애정도	.11	.16*	
	부모효능감	.27	.34***	
	양육스트레스	-.24	-.19*	
	결혼만족도	.06	.08	
	가족지원	.13	.17*	
	상수	3.13		
비장애유아 어머니의 부모역할 만족도	어머니연령	.02	.15	R ² =0.4720 adjusted R ² =0.4318 F=11.75***
	어머니학력	-.09	-.16*	
	어머니종교	.15	.14	
	부모효능감	.31	.33***	
	양육스트레스	-.27	-.22*	
	결혼만족도	.09	.13	
	가족지원	.02	.03	
	상수	3.05		

* $p<.05$, ** $p<.01$, *** $p<.001$ 유아성별^a: 남아=1 여아=0 어머니종교^b: 유=1 무=0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1) 장애유아 어머니와 비장애유아 어머니의 부모역할 만족도

장애유아 어머니는 비장애유아 어머니보다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부모역할만족도는 성인의 전반적인 생활만족의 주요인으로서, 부모로서의 정서적인 만족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는 측면(Guiduvaldi & Cleminshaw, 1989)에서 장애유아 어머니의 상대적으로 낮은 부모역할만족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장애자녀의 양육에서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하는 어머니의 부모역할에 대한 낮은 만족감은 어머니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체계적 기능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애유아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는 비장애유아 어머니와의 상대적 비교에서는 유의하게 낮았지만, 평균 4.02로 높은 수준을 보임으로써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이로서 장애자녀를 둔 어머니는 자녀의 장애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지만(강선경, 2002; 전유경, 2003; Dayson, 1993) 부모로서의 만족감은 높게 나타나, 실제적인 양육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추측할 수 있다.

2) 유아특성, 어머니특성 및 가족특성에 따른 장애유아 어머니와 비장애유아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

유아특성, 어머니특성 및 가족특성이 장애유아 어머니와 비장애유아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유아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는 유아의 성, 출생순위, 장애유형, 어머니의 연령, 학력, 종교, 취업유무, 그리고 가족의 월소득 및 가족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유아의 연령과 장애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만 3세 장애유아 어머니보다는 만 4세, 만 5세 장애유아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장애의 정도가 중할 때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가 낮아졌다. 장애유아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없어 선행연구를 통한 논의에는 한계가 있으나, 장애의 정도가 중하고, 장애의 정도가 두드러지는 만 4세 이후에 어머니의 부모로써 느끼는 기쁨과 유능감이 감소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비장애유아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는 유아의 연령, 성, 출생순위, 어머니의 종교, 취업유무, 가족의 월소득 및 가족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비장애유아 어머니의 연령과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 즉, 어머니의 연령이 35세 이상으로 높은 집단과 학력이 고졸 이하로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의 부모역할만족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에 따른 부모역할만족도를 비교한 강희경(1994) 연구에서 20대 출산모에 비해 30대 고령 출산모의 부모역할만족도가 더 높았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어머니의 연령이 부모역할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한 연구(양연숙, 1997; 조복희, 현온강, 1994)와는 다른 결과이다.

한편,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부모역할만족도에서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 때 부모역할만족도가 더 높았다는 연구결과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학력이 높은 부모의 경우 대개 가정생활보다 사회생활에 더 비중을 두게 되므로, 자녀에 대한 가치를 낮게 평가할 수 있는 한편 사회생활에 몰입으로 인해 부모역할 수행에 소홀해짐으로써 부모역할수행에 불만족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학력이 낮은 부모는 자신의 가치를 자녀를 통해 대리성취에 두기 때문에 부모역할만족도가 높다는 해석(Heiss, 1976)도 가능하다.

셋째, 장애유아 어머니와 비장애유아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는 어머니의 부모효능감, 양육스트레스, 결혼만족도 그리고 가족지원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부모효능감, 결혼만족도, 가족지원을 높게 인식할수록 그러나 양육스트레스는 낮게 지각할수록 부모역할만족도가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효능감(양연숙, 1997), 결혼만족도(Lavee et al., 1996)가 높을수록 부모역할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가족이 지닌 대인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족지원이 많을수록 자녀 양육으로 인한 어려움을 감소시키고 부모역할만족도를 높인다는 연구결과(도현심, 김지신, 1997; 양연숙, 1997; 옥경희, 2000; 현온강, 1994)와도 일치한다. 또한 장애유아 어머니와 비장애유아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와 양육스트레스간의 부적 상관관계를 통해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는 부모로서의 만족감, 행복감 등의 심리적 만족감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부분은 장애유아 어머니의 경우 비장애유아 어머니에 비해 부모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와 부모역할만족도간의 상관계수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이는 장애유아 어머니의 경우 부모효능감이 높고, 양육스트레스가 낮아도 비장애유아 어머니만큼 부모역할만족도가 높지 않음을 나타내어 부모효능감이 높다고 하더라도 부모역할만족도의 정도가 함께 높아지지 않다는 점에서는 장애유아 양육의 어려움을, 양육스트레스가 높아도 부모역할만족도가 낮지 않다는 점에서는 어머니의 부모역할 수행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3) 장애유아 어머니와 비장애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관련 변인의 영향력

장애유아 어머니와 비장애유아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에 미치는 관련 변인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장애유아 어머니와 비장애유아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모효능감으로 나타났으며, 이 외에도 양육스트레스, 결혼만족도 등과 같은 어머니의 심리적 변인과 가족이 주위자원으로부터 받는 가족지원이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를 잘 양육하고 지도하며 자녀와 문제가 생겨도 이를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부모로서의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인 부모효능감을 지닌 부모는 심리적 어려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서 스트레스 사건에 덜 취약하고 회복력이 있다는 연구결과(양연숙, 1997; Aspinwall & Taylor, 1992)와 일치한다. 따라서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효능감을 향상시킴으로써 양육스트레스를 낮추고 부모역할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의 부모교육이 요구된다. 특히 장애유아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기존 교육은 장애유아의 특성 이해나 증재방법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어머니의 부모효능감과 부모역할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부모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결혼만족도와 가족지원이 부모역할만족도의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나, 가족의 건강성을 지원하는 사회적 차원의 적극적 중재와 네트워크의 구성이 촉구된다.

한편, 장애유아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는 자녀의 연령과 장애정도와 같은 자녀특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 장애유아 어머니는 자녀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장애의 증후가 명확해지고, 장애의 정도가 심해지면서 부모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경험하며, 부모로서의 만족감, 행복감, 보람 등 심리적 만족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어머니특성과 가족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 비장애유아 어머니와는 달리 장애유아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에는 장애자녀의 특성이 중요한 변인이 됨을 알 수 있다. 점차 명확해지는 자녀의 장애를 받아들여야 하는 심리적 고통 이외에도 자녀의 교육과 치료를 위한 시설과 서비스의 부재로 인한 좌절감, 경제적 부담감, 자녀의 미래에 대한 염려 등으로 인해 장애유아 어머니는 더 많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Dayson, 1993) 이로 인해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장애유아가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이 있으나 이 또한 시설의 수가 적어 접근이 용이하지 않으며 치료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설 기관을 별도로 이용해야 한다. 장애유아 및 가족을 위한 정보제공 및 상담, 교육과 치료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요구된다.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장애유아 어머니와 비장애유아 어머니의 부모 역할만족도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장애유아 어머니가 경험하고 있는 부모역할만족도의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장애유아 어머니와 비장애유아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유아특성, 어머니특성, 가족 특성으로 구분하여 이들 변인이 부모역할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만 3세 이상 만 6세 미만의 취학전 장애유아 어머니 100명과 비장애유아 어머니 123명으로 총 2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장애유아 어머니와 비장애유아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를 비교분석한 결과, 장애유아 어머니가 상대적으로 비장애유아 어머니보다 부모역할만족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장애유아 어머니와 비장애유아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에 미치는 유아특성, 어머니특성 및 가족특성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장애유아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는 자녀의 연령과 장애정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즉, 만 3세 장애유아 어머니보다는 만 4세, 만 5세 장애유아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장애의 정도가 중할 때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비장애유아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는 어머니의 연령과 학력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어머니의 연령이 35세 이상으로 높은 집단과 학력이 고졸 이하로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의 부모역할만족도가 높았다. 한편, 장애유아 어머니와 비장애유아 어머니 모두 부모효능감, 결혼만족도 및 가족지원의 정도가 높을수록 그러나 양육스트레스는 낮을수록 부모역할만족도가 높았다.

셋째, 장애유아 어머니와 비장애유아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에 미치는 관련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장애유아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는 장애유아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이 높고, 장애유아의 연령이 어리고, 양육스트레스가 낮고, 가족지원의 정도가 높을수록 부모역할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장애유아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는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이 높으면서, 지각된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저학력의 어머니일수록 부모역할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아의 탄생은 가족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부부관계와 가족체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장애 유아의 출생과 양육부담은 그 가정으로 하여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장애유아 부모와 가족들에게 지속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경험하게 한다. 대부분의 장애유아를 둔 부모들

은 장애유아에 대한 장애수용의 어려움 및 장애유아에 대한 적절한 대처 지식과 능력의 결여 그리고 장애유아에게 투자되는 시간적·신체적·정신적 한계와 보호능력의 탈진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가족긴장 및 갈등의 고충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장애유아로 인한 부담으로 가족자체의 복지를 위협받게 된다. 특히 장애 자녀의 양육에서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하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나 부모역할에 대한 낮은 만족감은 어머니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체계적 기능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이 장애유아나 일반적 배경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기 보다는 부모효능감, 양육스트레스, 결혼만족, 가족지원 등 심리적 특성의 영향을 더 받으며, 특히 부모효능감이 부모역할만족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남으로써, 장애유아 양육의 일차적 책임자인 어머니의 적응과 대처를 돕는 사회적 서비스, 교육 및 상담이 요구된다. 이때 현황 프로그램들이 자녀발달의 특성, 자녀지도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 전달과 같은 유아 중심의 단순 정보 전달에서 벗어나 부모자신의 부모역할만족을 높일 수 있는 부모됨의 의의와 부모역할 수행의 역량을 강화하는 정신건강의 문제로 관심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표본수가 적고, 특정 연령의 유아만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기에 그 결과를 전체 장애유아 어머니와 비장애유아 어머니에게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스트레스가 그대로 방치될 경우 실제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녀의 발달 및 행동특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장애유아의 주 양육자인 어머니 개인적 특성과 장애유아의 특성뿐만 아니라 가족으로 그 범위를 넓혀 다양한 시각에서 부모역할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비장애유아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와 비교분석함으로써, 장애유아 어머니 및 가족의 심리적, 사회적 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수립과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 참고문헌

- 강선경(2002). 장애자녀를 둔 부모의 태도, 스트레스 대처 및 사회적 지원이 그들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4, 7-35.
- 강희경(1994).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부모역할만족도와 부모 역할에 대한 자신감-20대 출산모와 고령출산모의 비교-.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동연, 김원명, 최외선(1993). 정신지체가 어머니의 가족스트레스 연구. *특수교육학회지*, 14, 63-81

- 김명희(1998).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망과 아동이 지각한 양육행동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지(2005). 취학전 자녀를 둔 어머니의 모성 이데올로기와 부모역할 만족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도현심, 김지신(1997). 사회적지지 및 부모역할만족도와 어머니의 양육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6(5), 127-135.
- 문현준(2001). 부모역할만족도와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1), 205-219.
-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연숙(1997). 일하는 어머니의 취업특성에 따른 부모역할만족. *대한가정학회지*, 35(2), 139-150.
- 옥경희(2000). 맞벌이 주말부부의 부모역할만족도. *산경연구(광주대학교)*, 317-336.
- 이경희(1993). 장애아동의 가족스트레스와 적응의 구조모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한우(2002). 발달장애아동 가족지원 특성과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연신(2002). 한국과 연변조선족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 및 양육태도 비교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유경(2003). 장애자녀 어머니와 일반자녀 어머니의 스트레스, 대처방안, 자아존중감 비교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현숙(1997). 결혼만족도 연구와 척도의 고찰을 통한 새로운 연구방향과 척도의 모색. *대한가정학회지*, 35(1), 191-201.
- 조복희, 현온강(1994). 한국 부모의 부모역할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2(5), 97-108.
- 현온강(1994).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와 관계변인.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현온강, 조복희(1994). 부모의 역할만족도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2(1), 103-117.
- Aspinwall, I. G., & Taylor, S. E. (1992). Modeling cognitive adaptation: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of the impact of individual differences and coping on college adjustment and perform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989-1003.
- Berger, M., & Fowlkes, M. A. (1980). Family intervention project: Family network model for serving young handicapped children. *Young Children*, 35, 22-32.
- Bowen, G. L.(1982). Social network and the maternal role satisfaction of formerly-married mothers. *Journal of Divorce*, 5(4), 77-85.
- Bristol, M., Gallagher, J., & Schoper, E. (1988). Mother and father of young developmental disabled boys. *Developmental psychology*, 24, 441-451.
- Dyson, L. L. (1993). Response to the presence of a child with disabilities: Parental stress and family functioning over time. *American Journal of Mental Retardation*, 98(2), 207-218.
- Goldstein, K., & Ross, C. E. (1989). The perceived burden of children. *Journal of Family Issues*, 10, 504-526.
- Guidubaldi, J., & Cleminshsw, H. K.(198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leminshaw-Guidubaldi Parent Satisfaction Scale. In Fine, M. J.(Ed.), *The second handbook on parent education*. N. Y.: Academic Press, Inc.
- Hanson, M., & Hanline, B. (1990). Parenting a child with a disability: A longitudinal study of parental stress and adaptation. *Journal of Early Intervention*, 14(3), 234-248.
- Heiss, J. (1976). *Family roles and interaction: an anthology*. Chicago: Rand Macnally.
- Koegel, R. L., & Koegel, L K. (1995). *Teaching children with autism: Strategies for initiating positive interactions and improving learning opportunity*. BM : Paul H. Brooks Publishing Co.
- Krauss, M. W. (1993). Child-related and parenting stres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mothers and father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American Journal on Mental Retardation*, 97(4), 393-404.
- Lavee, Y., Sharlin, S., & Katz, R. (1996). The effect of parenting stress on marital quality: An integrated mother-father model. *Journal of Family Issues*, 17, 114-135.
- Mikhail, A. (1985). A psychological conception. In A. Monet & R. S. Lazarus(Eds.), *Stress and coping: An anthology*(2nd ed.).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 Singer, S., & Farkes, K. J. (1989). The impact of infant disability on maternal perception of stress. *Family Relation*, 38, 444-449.

- Tew, B., Lawrence, K., Payne, H., & Rawnsly, K.(1977).
Marital stability following the birth of a child.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31, 79-82.
- Umberson, D. (1989). Parenting and well-being: The
importance of context. *Journal of Family Issues*,
10(4), 427-439

- Wethington, E., & Kessler, R. C. (1989). Employment,
parental responsibility and psychological
distress: A longitudinal study of married
women. *Journal of Family Issue*, 10, 527-546

(2006년 9월 23일 접수, 2006년 12월 1일 채택)